

# 함께 가는 감성복지 실현

### 남원시, 복지대상자 발굴·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남원시가 올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살피고, 찾고, 보듬어 함께 가는 감성복지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병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해 남원시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규 수급자 발굴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더욱 활성화시켜 소외계층 발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세차커피 사업단을 신설해 청년층의 지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호평을 받은 자활사업단 식당 제철에 그 곳 만나 매출을 높여 참여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해 당당한 삶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에는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장애인 7,875명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소득 지원사업에 46억7,600만



남원시는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감성복지 실현에 앞장선다고 3일 밝혔다.

원, 장애인 124명의 일자리에 11억 7,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3,200만원을 편성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 확대와 사회참여를 견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30명에게는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이웃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1인 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조사된 돌봄이 필요한 750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예산 4,300만원을 들여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치유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힐링 캠프와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민주거과장은 "시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 역량 강화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복지 남원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올해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은?

### 남원보건소, 임신·출산 의료비·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분만 예정일부터 1년으로 늘어나며 이용 범위 확대에 임신부의 임신 출산 진료비뿐 아니라 만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서 6가지 질환(점치태반, 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되며,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신청 시에 질환별 세부신청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임신후인일 기준)로, 지원범위가 1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분만예정일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성황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작한 제8회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화려한 눈꽃향연 속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남원 운봉애향회(회장 김종열)가 주관해 지리산 허브밸리에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눈꽃축제를 개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겨울철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상으로 되돌아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눈꽃의 낭만을 선물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눈과 영하로 떨어진 날씨로 지리산 바래봉의 설경을 찾는 산행객과 눈꽃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산의 은빛 설경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눈꽃축제에는 눈썰매장(일반, 어린이용), 얼음썰매장, 허브사이언스센터(식물원, 압화전시관, 허브체험), 포토존(2개소),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일반(8,000원), 남원시민(6,000원), 만3세미만(무료)이고, 허브체험은 별도(개별063-636-4000/단체063-625-0625)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야생동물피해 농가지원 상향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보조율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경작지 진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확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작년보다 1억5000만원 증액한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조율 역시 도내에서는 제일

높은 75%,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1월 중에 공고를 통해 경작지 소재 읍 면사무소에서 농가의 접수를 받은 후 2월 중에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임실군은 또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의 서식밀도를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교미시기인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도 지난해 2억원보다 두 배인 4억원을 확보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임실군의 안정적인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심 군수의 남다른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겪는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보조율을 과감하게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순창군, 아르바이트생 근로개선 앞장

순창군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인력 고용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도록 군내 336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인이나 청소년(미성년자)을 고용할 때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후 사본 교부, 최저임금 적용, 미성년

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징구, 미 준수 시 법적제재 등을 담았다.

법령상 근로계약 미체결 시 사업주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하, 최저임금 미적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순창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학생들이 근로여건 개선의 제도적

장치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 전에도 이미 학생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대해 점검을 진행해 왔다. 최근 인근 타 지역의 경우 근로감독기관에서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점검에 나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군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이 2년 연속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재해로 부터 안전한 임실, 2년 연속 우수지자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추진 점검, 2018년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2년 연속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재해 예방의 으뜸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재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조기발주 추진과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실시, 급경사지 사업비 선투입 및 소화천 현장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군은 이번 추진실태 점검 결과와 2019년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 실적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임실군은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11개 지구에 175억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2017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입증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 임실군 겨울독서교실

### '책 속 동물이야기'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겨울 독서교실 '책 속 동물이야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담이와', '으뜸 헤엄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세 권의 책을 읽고 책 속 동물을 동화구연으로 표현 및 관심있는 동물에 관한 책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해보는 활동을 하게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책을 더 재미있게 생각하고 책 속으로 빠져들어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립도서관(☎ 063-640-2931)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흥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